광역단체장 한 13·與 2·민주 2곳 장담

■여야, 지방선거 전국 판세 분석

우리-한나라, 대전·제주 서로 승리 주장

기초단체장도 한나라당 압승 전망

여야는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부동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판세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전과 제주 등 격전지의 승부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전망이 엇갈렸다.

◆광역단체장=열린우리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북과 대전 두 곳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퇴원 유세가 대전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대전에서 승리할 것 같다"며 "제주도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대했던 광주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 가운데 한나라당이 11곳, 우리당이 2곳, 민주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셈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호남권인 광주, 전남·북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 등 기존 우세지역 11곳에 더해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던 대전과 제주까지 당선권으로 보고 있는 것.

이는 박근혜 대표의 퇴원 유세가 대전과 제주의 판세를 뒤집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전망이다. 중앙선대위 김태환 종합상황실장은 "백중세였던 대전시장 선거에서 박성효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이미 여유있게 앞섰다는 판단 아래 전북지사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유종필 대변인은 "정균환 후보가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많이 좁혔다"며 "전북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적게는 21곳, 많게는 28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공천한 197곳 가운데 158곳을 '우세', 23곳을 '백중세'로 분류, 최대 181곳에서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및 전남, 전북 4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석권을 비롯해 전남 목포, 전북 남원 등 28곳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관악구청장, 성남시장 등 6곳에서 우세 또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 최대 4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분석대로라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보다 많은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를 배출한 울산 북구와 동구를 수성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국민중심당은 대전과 충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올인'하며 최대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와 동구청장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고, 충남의 경우 태안, 논산, 계룡, 공주, 연기, 금산 등 6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중심당의 주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30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로써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자'는 내용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 정부 추진 의지에 달려"

김 재 철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

30일 2012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철(71) 동원그룹 회장은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의 강력한 유치 추진 의지"라고 강조했다. 세계박람회 유치가 특정 지역이나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힘드는 일인만큼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중앙유치위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전남도, 여수시 등 박람회 개최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총력 유치전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에 선임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여수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관 협조 총력전"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실패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뒤돌아본 김 위원장은 "당시 상하이(上海)라는 거대장벽에 막혀 비록 좌절됐지만 모스크바나 멕시코시티 같은 세계적 대도시들을 물리침으로써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 또한 사실이다"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예상경쟁국들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전의 경험을 살려 전력투구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유치위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중앙유치위 출범이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제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 및 경쟁국의 동향을 살피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제적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BIE 실사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를 향한 구체적인 홍보활동 계획도 소개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CI(이미지통합전략)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홍보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BIE 총회 등 국제 행사, 재외공관 및 주요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해외지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홈피구축 BIE 등 홍보

"세계박람회는 BIE회원국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추진 의지다"라고 거듭 역설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밀고 나갈 때 BIE 회원국 교섭활동은 물론 개최 후보지의 인프라 확충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 출신인 김 위원장은 1999년부터 7년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부경대 명예총장, 광주과학기술원·해양문화재단·장보고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여야 대국민 호소

우리 "다시 시작하게 싹 살려 달라"

한나라 "선거통해 참여 정부 심판"

여야 당 지도부는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일제히 각 당 대표와 지도부 명의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고 다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진보개혁세력을 결집하겠다"며, 한나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각각 호소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천하는 정당이며, 한국 정치의 원죄인 지역주의로부터 과감하게 손을 씻은 정당이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민주개혁세력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도 있다.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회초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싹을 살려달라.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아울러 우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지방자치 투명화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로 변경하는 것, 정보공개청구권의 확대와 독립감사제 도입 등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제반 노력들도 힘껏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 이 정권 3년간 경제·교육·복지·외교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다. 백주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야당 대표가 생명을 잃을 뻔한 테러를 당할 정도로 치안상태는 엉망이다. 모두 파탄지경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은 책임도 못지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열린우리당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지 깊이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정권교체가 어려워진다. 한나라당은 경제회복·민생안정·국가안보·국민통합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더욱 더 낮은 자세로 항상 함께 하겠다. 화려한 선전구호보다도 한걸음씩 국민 여러분속으로 다가가겠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배신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기를 향해 가시밭길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전남북을 교두보로 삼아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다. 이제 한나라당을 견제해 일당독주를 막을 정당,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민주당 뿐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배신하고 민생에는 무능했다. 진보와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킨 우리당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수구보수정당 한나라당의 득세로 진보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이 위협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당지배는 풀뿌리 지방자치에는 사망선고와 다름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MBC·SBS 등 방송 3사

오늘 오후 6시 출구조사·결과 방송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일제히 출구조사를 비롯, 5·31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방송한다.

KBS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광역단체장과 일부 기초단체장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KBS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9만6천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했다. 또 경합이 예상되는 광역단체장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 당일 출구조사를 실시한다.

MBC도 이날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전화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한 예상 결과를 발표한다. 출구조사는 투표 당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부산 광주 제주 대구에서 5~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SBS는 2002년 대선에서 방송3사 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보도했던 당선 예측 시스템 '매직원'을 가동, 유력·확실·당선 3단계로 개표 결과를 보도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